

# 초기철기~원삼국시대 마노제 구슬의 유통

## The Trade of Carnelian Beads during the Early Iron Age and Proto-Three Kingdoms Period

윤주일

경북대학교 실크로드조사연구센터 연구원

### I. 머리말

### II. 마노제 구슬의 분류와 변천 양상

### III. 마노제 구슬의 제작지

### IV. 마노제 구슬의 유통 과정

### V. 맺음말

# 국문 요약

본고에서는 한반도 출토 마노 구슬에 대해 유통의 측면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노 구슬의 형태를 분류하고 전개양상을 검토하였으며 종류별 제작지와 분포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기철기-원삼국시대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12종의 마노제 구슬류는 원석 산지, 제작 유적, 재지적 형식, 제작기법, 분포 양상, 당대의 문헌기록 등으로 보아 주로 북방지역(몽골/러시아 극동/중국 동북)에서 제작된 '북방계'와 남방지역(남아시아/동남아시아)에서 제작된 '남방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영남지역에서 주류를 이루는 다면형 구슬은 남방산 구형 구슬의 재가공품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각종 마노제 구슬류가 한반도로 유통되는 과정에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기철기시대에는 만경강유역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지역으로부터 북방계 마노 구슬이 유입되지만, 漢이 군현을 설치한 이후에는 중국 본토와의 교역망을 통해 낙랑군에 다양한 남방계 마노 구슬류가 집중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며, 한편으로는 북방계 마노 구슬류 또한 활발히 유입된다. 그리고 원삼국 후기에는 군현 세력이 약화되고 삼한 및 예가 성장하여 마노 구슬의 주요 소비지가 된다. 중서부, 서남부와 동남부지역은 대중교역을 통해 남방계 마노 구형 구슬이 다량으로 유입되는 반면, 중부지역에서는 북방계 마노 구슬류가 소량으로 유입되어 삼한과 예계 문화권 간 뚜렷한 유통망의 차이를 보여준다.

**주제어** : 초기철기시대, 원삼국시대, 마노, 홍옥수, 구슬, 교역

## I . 머리말

‘마노(瑪瑙)’는 석영질 광물의 일종으로 본 발표에서 다루는 마노는 대부분 붉은 색을 띠는 종류이다. 이러한 종류의 마노는 ‘홍옥수(紅玉髓)’라고도 한다. 초기철기 시대 이후 원삼국, 삼국시대에 걸쳐 한반도 각지에서는 이러한 마노로 제작된 구슬 장신구가 패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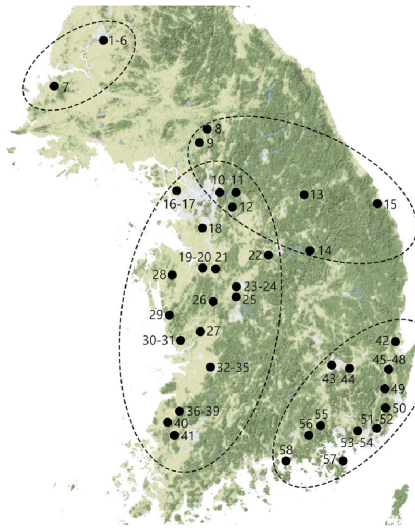
마노제의 구슬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으며, 주로 특정 지역의 장신구 또는 외래계 문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간략히 검토된 경우가 많다(김무중 2006; 김미령·김승욱 2013, 권도희 2020; 조성원 2019; 함순섭 1998; 홍보식·조성원 2013). 그러나 최근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해 한반도의 마노 구슬에 대해 본격적으로 제작기법, 해외 사례 비교 등을 비롯한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허진아 2018; Glover·Kenoyer 2019; 大賀克彦 2021). 이러한 최근의 연구들은 국내 출토품 중 상당수가 남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마노 구슬의 제작지에 대한 연구성과들을 통해 고대 한반도의 대외교류 연구에 있어서 마노 구슬이 가진 중요성이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출토된 각종 마노제 구슬류 가운데 특정 종류 이외에 다른 여러 종류들의 제작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한반도 각 지역 자료의 종합적인 검토는 부족하였는데, 특히 원삼국시대 대외교섭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낙랑지역 자료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노 구슬의 유통 과정을 온전하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마노제 구슬류의 제작지를 밝히고 각 지역을 종합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외의 보다 전체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한반도 출토 마노제 구슬류의 제작지 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유통 양상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 서북부지역, 중부지역, 중서부·서남부지역, 그리고 동남부지역을 대상으로 한다.<sup>1)</sup>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마노 구슬 자료는 총 58개소의 유적에서 출토되었으며 대부분은 분묘 출토품이나 일부는 주거지에서 출토된 경우도 있다(윤주일 2024: 7~40). 이 가운데 서북부지역 자료의 경우 상당수는 상세한 보고 및

1) 경기 서부와 남부지역은 마한의 성격이 강하므로 본고에서는 중서부·서남부 마한 권역에 포함하고자 한다.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남한지역과 같은 전체적 자료 집성은 어렵지만, 형태적 속성을 관찰할 수 있는 도판이나 도면 등 활용 가능한 정보를 반영하여 분석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sup>2)</sup>



**서북부**

- 1.평양 정백리 2.평양 정백동 3.평양 석암리 4.평양 정오동
- 5.평양 오야리 6.평양 토성동 7.은율 운성리

**중부**

- 8.연천 삼곶리 9.연천 학곡리 10.하남 미사리 11.양평 문호리
- 12.광주 곤지암 13.횡성 둔내리 14.단양 수양개 15.동해 송정동

**중서부/서남부**

- 16.김포 운양동 17.김포 양촌 18.화성 화산동 19.아산 용두리 진터
- 20.아산 탕정 벽지묘리 21.천안 청당동 22.충주 금릉동 23.청주 오송
- 24.청주 송철동 25.연기 용암리 26.공주 하봉리 27.부여 청송리
- 28.서산 예천동 29.보령 명천동 30.서천 오석리 31.서천 봉선리
- 32.전주 원양동 33.전주 만성동 34.전주 반월동 35.전주 효자4
- 36.고창 남산리 37.고창 예지리 38.고창 선동 39.고창 만동
- 40.영광 수동 41.함평 예덕리 만가촌

**동남부**

- 42.포항 옥성리 43.대구 팔달동 44.경산 조영동 45.경주 사라리
- 46.경주 덕천리 47.경주 황성동 48.경주 조양동 49.울산 하삼정
- 50.울산 하대리 51.부산 노포동 52.부산 북천동 53.김해 양동리
- 54.김해 구지로 55.함안 도항리 56.진주 함촌리 57.거제 대금리
- 58.사천 녹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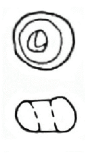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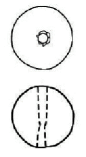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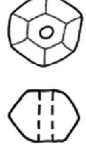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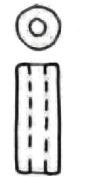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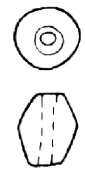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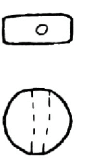


[도면 1] 초기철기-원삼국시대 마노 구슬 출토 유적

## Ⅱ. 마노제 구슬의 분류와 변천 양상

### 1. 마노제 구슬의 분류

마노제 구슬류는 기본적으로 외적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본고에서는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마노제 구슬류를 [도면 2]와 같이 12개의 형태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종류별로 색조와 크기 등에서도 어느 정도의 특징이 확인된다. 다만 색조는 마노의 광물적 특성상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모든 자료에서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2)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유적들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개한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관자료와 최신 보고 자료 및 전시 자료(국립경주박물관 2021; 국립중앙박물관 2001, 2002, 2018, 2021, 2022) 등 국내에 남아 있는 자료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북한에서 조사된 유적들의 경우, 다수의 구슬 자료가 보고되었으나 도판 자료가 제시된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본고에서는 『조선유적유물도감2-고조선, 부여, 진국 편』(1990)을 통해 도판 자료가 공개된 유적들을 대상으로 한다.

원통형		구형		다면형	다면원통형
I 류	II 류	I 류	II 류		
					
관형	조형	동물형	평형	가자형	고형
					

[도면 2] 한반도 출토 마노 구슬의 형태 분류

원통형(圓筒形) 구슬은 평면 형태는 원형, 단면 형태는 양면이 평평한 원통형을 띠며, 원추대가 양쪽으로 맞닿아 있는 형태의 천공관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특징적이다. 원통형 구슬은 크게 두 종류로 다시 나뉜다. 원통형 I 류는 단면 형태가 직선적인 것으로 방형을 띠며 II 류는 단면이 배가 부른 원통형을 이룬다. 너비가 두께보다 큰 납작한 형태가 많지만 반월동 출토품과 같이 두께가 더 큰 경우도 있다. 크기는 너비 0.5~1cm로 작은 편인데, 천공 크기는 0.2~0.5cm 정도로 큰 편이다. 색조는 주황색, 진홍색, 갈색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구형(球形) 구슬은 구형 또는 구형에 가까운 형태로, 크게 두 종류로 다시 나뉜다. 구형 I 류는 완전한 구형에 가까운 비교적 고품질의 구슬이며 외면이 잘 마연되어 있다. 반면 II 류의 경우 외면이 고르게 마연되어 있지 않은 저품질의 구슬으로, 대부분 한쪽 면에 천공으로 생긴 박리흔이 남아있다. II 류는 대부분 완전한 구형을 이루지 못하며 정형성이 낮으나, 두께보다 너비가 더 큰 경우가 많다. 작은 것은 너비 0.5cm 이하, 큰 것은 1.5cm 이상으로 크기가 다양한데, 대개 2cm 이하이다. 천공 크기는 작은 것은 0.1cm, 큰 것은 0.2cm 내외이다. 색조는 밝은 홍색과 주황색이 많다.

다면형(多面形) 구슬은 평면과 단면 형태가 모두 육각형을 띠는 구슬이다. 대체로 너비가 두께보다 커서 단면 형태는 납작한 다각형이다. 크기는 대체로 구형 구슬과 유사하지만 0.5 이하의 소형은 잘 확인되지 않는다. 색조 역시 구형과 같이 밝은 홍색과 주황색이 많다.

다면원통형(多面圓筒形) 구슬은 평면은 칠, 팔각형 등의 다각형이지만 단면은 배가 부른 원통형을 띤다. 너비가 두께와 유사하거나 보다 큰 것이 보통이지만 삼국시대 출토품의 경우 반대로 세장한 것도 확인된다. 천공 크기는 0.2~0.3cm 정도로 비교적 큰 편이다. 색조는 진한 홍색, 갈색이 많다.

관형(管形) 구슬은 긴 대롱형의 구슬이다. 천공 크기는 0.2~0.5cm 정도로 비교적 큰 편이다. 너비는 0.5~1cm, 길이는 짧은 것은 1.5cm 내외, 긴 것은 3cm 이상이다. 색조는 다면원통형과 같이 진한 홍색과 갈색이 많다.

이러한 국내에서 출토되는 주요 종류 외에도 서북한지역 낙랑 분묘유적에서 주로 확인되는 기타 종류로서, 원추대 두개를 맞붙인 형태의 조형(棗形), 사자 모양의 동물형(動物形), 옆면이 납작한 원형의 평형(平形), 가지 모양의 가지형(茄子形), 장구 모양의 고형(鼓形) 등이 있다. 조형 구슬의 경우에는 평면 형태가 원형인 것과 다면형인 것, 단면 형태가 다면형인 것과 긴 원통형인 것 등 여러 형태로 세분할 수 있으나 상세하게 확인 가능한 자료가 많지 않으므로 본장에서 세부적으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다만 필요한 경우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2. 마노제 구슬의 변천 양상

앞서 설정한 형태 분류안을 바탕으로 마노제 구슬류의 변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노제 구슬류의 전반적 변화상을 고려하여, [표 1]과 같이 초기철기시대(기원전 3~2세기), 원삼국 전기(기원전 1세기~기원후 2세기 전반), 원삼국 후기(2세기 후반~3세기)의 세 단계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초기철기시대

한반도에서 마노 구슬이 본격적으로 출현하는 시기는 초기철기시대이다. 서북한 지역의 경우 현재로서는 이 시기의 분명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나 남한지역의 경우 대체로 기원전 3~2세기 무렵의 금강·만경강유역에서 마노 구슬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주 만성동, 반월동, 원장동, 효자동, 부여 청송리 등 각종 청동기류가 공반되는 상위 계층의 토광묘(목관묘) 및 적석목관묘에 1~4점 정도 소량 부장된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마노 구슬은 전주 효자동의 관형 구슬과 부여 청송리의 조형 구슬을 제외하면 모두 원통형 구슬으로, I 류와 II 류가 모두 확인된다. 특히 원장동

[표 1] 시기별 마노 구슬 출토 대표 유구(윤주일 2024: 45 수정 후 인용)

지역 시기	서북부	중부	중서부·서남부	동남부
초기철기			전주 효자4 1호 전주 만성동 1호 전주 반월동 1호 전주 원장동 1호	
원삼국 전기	운성리 9호 정오동 1호 오야리 20·25호 정백동 3·8·17·37·53·127·138호 석암리 9·52·194·120·219호 토성동 45호		영광 수동 1호 보령 명전동 1호	사천 녹도 A지구 나폐기장 경주 덕천리 130호 경주 조양동 20·29·38호
원삼국 후기		연천 학곡리 연천 삼꽃리 광주 근지암 하남 미사리 양평 문호리 단양 수양개 황성 둔방내리 동해 송정동	김포 운양동, 양촌 화성 화산동 아산 용두리, 명암리 천안 청당동 청주 송절동, 오송 충주 금릉동 서산 예천동 서천 봉선리 연기 응암리 고창 만동, 선동, 남산리, 예지리 함평 예덕리 만가촌	경주 황성동 경주 덕천리 경산 임당동 대구 팔달동 포항 구슬성리 부산 노포동 김해 양동리 함안 도항리 거제 대금리

\* 원삼국 후기는 유구가 많아 번호를 생략했으나, 유적 전체가 아닌 마노 구슬 출토 유구를 나타냄.

에서는 이 두 종류가 공반되었는데, 크기와 색조 등에서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sup>3)</sup> 또한 원통형 외에 관형과 조형의 경우, 원통형 구슬보다 큰 편이지만 형태적으로는 각각 원통형 I 류와 II 류에 비해 길다는 점 외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2) 원삼국 전기

기원전 1세기~기원후 2세기 전반 무렵의 원삼국 전기에는 서북한지역의 낙랑 고분군에서 다종다양한 마노제 구슬류가 확인된다. 기원전 1세기대의 낙랑 분묘에서 구형, 원통형, 다면원통형, 관형, 동물형, 조형 등 거의 대부분의 종류가 확인되어 낙랑 설치 이후 이른 시기부터 각종 마노제 구슬류가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1세기대의 대표적 사례로는 정백동 37호, 오야리 20호 병혈합장목곽묘, 석암리 219호 동혈합장목곽묘 등이 있다. 그리고 이후 석암리 120호, 오야리 25호, 토성동 45호 등 서기 1세기 후엽 이후의 전실묘에도 구형, 관형, 가자형 등의 마노제 구슬류가 확인

3) 크기는 직경 0.85cm 내외, 천공 크기 0.25cm 내외, 색조는 명적색 또는 암적색.

된다. 낙랑 분묘에서는 남한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가자형, 고행, 동물형 등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고품질 구슬류가 확인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반면 남한지역의 경우 이 시기에도 여전히 마노 구슬 출토량은 적은 편이며 종류도 비교적 제한적이다. 사천 늑도, 경주 덕천리 130호 목관묘 출토품 등과 같이 초기 철기시대 이래의 원통형 구슬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지만, 보령 명천동, 영광 수동 토광묘, 경주 조양동 20호, 29호 목관묘 등에서 구형 구슬이 출현한다. 낙랑의 경우 I류의 구형 구슬이 주류인 데 반해 국내에서 출토되는 구형 구슬은 모두 II류에 해당하는 저품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3) 원삼국 후기

기원후 2세기 후반~3세기 무렵 원삼국 후기의 경우, 서북한지역은 3세기대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sup>4)</sup> 남한지역에서는 점차 마노 구슬이 확산되기 시작한다. 3세기대에는 중남부 전역에서 성행하게 되며 중부지역, 중서부·서남부지역, 동남부지역 간 지역성이 발생한다. 이 시기에는 II류의 구형 구슬을 남한 전역에서 확인되는 기본적인 종류로 볼 수 있지만 중부지역과 동남부지역은 그 외의 다른 종류가 주류를 이룬다.

중부지역에서는 마노 구슬이 광주 곤지암, 하남 미사리, 단양 수양개, 횡성 둔방내리, 동해 송정동 등 주거지에서 출토된 경우가 많으며 연천 학곡리, 양평 문호리 등 적석분구묘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구형 구슬도 소량 출토되지만 마한이나 진·변한 권역에서는 보기 드문 관형 구슬 및 다면원통형 구슬이 확인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중부지역에서 마노 구슬의 출토 사례와 출토량은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마노제 관형 구슬이 임진강유역, 한강하류역, 남한강유역, 북한강유역, 영동지역 등 ‘뫼’자형 주거지 분포권의 거의 전역에서 확인되어 예계 문화권의 지역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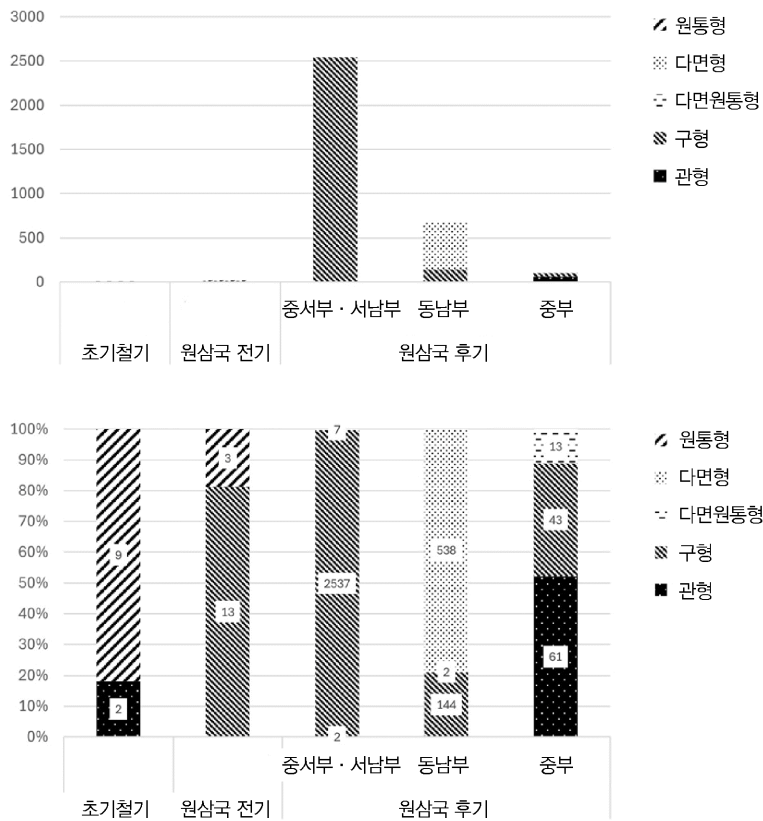
중서부·서남부 일대의 마한 권역은 마노 구슬이 가장 다량 확인되는 지역이며 II류의 구형 구슬이 대부분이다. 2세기대에는 김포 운양동 2-9지점 1호 분구묘, 아산 용두리 진터 18호, 41호 토광묘, 청주 송절동 2-1지점 113, 5-1지점 3호, 청주 오

4) 서북부지역 북한 보고서의 경우 도면, 도판이 없는 경우가 많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3세기대의 마노로 추정할 만한 구슬 자료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마노 구슬의 부장이 대체로 이전 시기에 비해 쇠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하다.



송 15지점 19호 토광묘 등을 비롯한 여러 출토 사례들이 확인된다. 이후 3세기대에는 마한 권역 각지에서 더욱 흔하게 확인되며, 분구묘, 주구토광묘 등의 분묘에 적게는 1점, 많게는 200점 이상의 대량으로 부장된다. 대표적으로 김포 양촌, 아산 명암리, 천안 청당동, 연기 응암리, 고창 만동 등의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바 있다.

동남부의 진·변한 권역에서는 마노 구슬이 목곽묘 단계, 특히 3세기대에 가장盛行한다. 이 시기에 마노제 다면형 구슬이 본격적으로 출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영남지역에서만 확인되는 종류이다. 낙동강 이서지역에서는 김해지역을 제외하면 구형 구슬이 주로 확인되지만, 낙동강 이동지역에서는 다면형 구슬이 주류를 이루며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경주 황성동, 김해 양동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확인되는데, 진·변한지역에서 마노제 구슬은 분묘에 10점 내외로 소량 부장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주 황성동(575번지)에서는 수십점으로 다량 부장되어 주목된다.



[도면 3] 남한지역 주요 마노 구슬류의 시기별 출토량(위)과 출토율(아래) (윤주일 2024: 67 수정 후 인용)

이상으로 살펴본 마노 구슬의 변천 양상 가운데, 남한지역 주요 종류의 시기별 비율과 출토량을 정리하면 [도면 3]과 같다.<sup>5)</sup>

### Ⅲ. 마노제 구슬의 제작지

#### 1. 한반도의 마노 구슬 생산 가능성

본 장에서는 한반도 출토 마노제 구슬류의 제작지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마노 구슬의 제작지에 대해서는 재지산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한반도 마노 구슬에 대한 세부적 분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현재의 주요 연구들은 모두 수입품으로 보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근거들 외에도 한반도의 마노 구슬이 수입품이라는 점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되는데, 특히 북방지역이나 일본열도 등 한반도 주변 지역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주변 지역들에서는 마노 원석 산지와 제작유적의 존재, 고대의 문헌기록, 재지적 형태, 제작기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마노 구슬이 제작된 증거들이 분명하게 확인되며, 한반도의 경우는 반대로 이러한 점들이 재지산이 아니라는 근거가 된다. 본절에서는 이에 대해 간략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 마노 원석 산지와 제작 유적의 존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대의 마노제 구슬이 한반도 내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는 연구들에서는 조선시대에 동해안 일대에서 마노를 채취하였다는 기록을 주요 근거로 고려한다(함순섭 1998: 66~67). 그러나 국내에 현재까지 확인되는 마노 원석 산지는 없다. 또한 마노에는 홍마노, 백마노, 청마노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조선시대에 채취된 마노가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유적에서 주로 출토되는 홍색 계열의 마노, 즉 홍옥수에 해당하는 종류인지, 고대에도 채취되었지는 알 수 없다. 반면 한반도 주변의 북방지역과 일본열도의 경우 고대의 마노(홍옥수) 구슬 제작유적과 원석 산지가 모두 확인된다.

두 번째로, 당대(고대)의 문헌기록 또한 한반도의 마노 구슬이 재지산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는 부여와 읍루에서 赤玉과 美珠가 산출되

5) 시기와 지역별 마노 구슬 자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윤주일(2024: [표 60]~[표 65]) 참고.

며 왜에서는 靑玉이 산출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반면, 마한에 대해서는 특별히 진귀한 보배는 산출되지 않으며, 대신 珠를 매우 선호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舊唐書』에는 왜에서 654년 마노를 상납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唐代와 달리 『三國志』 시기에는 북방지역에서 마노 구슬이 제작된 것이 확인되나 일본열도에서는 아직 마노가 구슬 소재로 사용되지 않았고 대신 청색의 경옥계 곡옥이 제작되었으며, 고분시대 이후 마노계 곡옥이 제작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점은 『舊唐書』의 왜에서 마노를 상납한 기록, 그리고 『三國志』에 부여, 읍루에서는 赤玉이, 왜에서는 靑玉이 산출된다는 기록과 일치한다. 그리고 『三國志』는 3세기대의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삼한지역, 특히 마한에서 마노 구슬이 가장 대량으로 출토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마노 구슬이 만약 재지산이라면 부여, 읍루와 같이 삼한 또한 赤玉과 美珠가 특산품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마한에 대해서는 珠의 생산지가 아닌 주요 소비지로서 언급되어 있으며, 예외 경우에는 珠를 보배로 여기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고대의 문헌기록 또한 당시 한반도의 마노 구슬이 재지산이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재지적 형태이다. 한반도에서 주로 출토되는 마노 구슬은 다른 석제 구슬류와 달리 재지적 형태가 아니다. 특히 한반도 남부에서는 원삼국-삼국시대에 매우 다양한 재질로 재지적인 곡옥 형태의 구슬이 제작되었으나, 이 지역의 가장 흔한 구슬 재질 중 하나인 밝은 홍색의 마노로는 곡옥이 제작되지 않았다. 삼국시대 이후 마노계 곡옥이 소량 확인되기는 하지만 이들은 색조, 분포, 출토 시기, 천공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국내에서 주류를 이루는 밝은 홍색의 마노 구슬류와는 차이가 있으며, 일본산으로 생각된다.<sup>6)</sup> 그리고 한반도 북부지역 또한 남부지역과 함께 청동기시대 이래로 곡옥 등을 비롯한 재지계 구슬문화를 공유하였으며 주로 천하석 등의 재질이 주류였으나, 낙랑이 설치된 이후 서북부지역에는 이러한 재지계 구슬류와는 다른 각종 외래계 마노 구슬류가 유리, 호박, 대모 등 다른 외래계 구슬류와 함께 다량 확인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점들은 한반도 남부뿐만 아니라 서북부지역 낙랑 분묘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된 다양한 마노 구슬류 또한 수입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6) 일본에서는 고분시대부터 갈색 계열의 마노 구슬이 주로 곡옥 형태로 제작되기 시작하며, 국내에서도 삼국시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이와 동일해 보이는 마노계 곡옥이 소량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바와 같은 간접적 근거들 외에도 국내의 마노 구슬이 재지산이 아니라는 보다 직접적인 근거는 최근에 이루어진 마노 구슬에 대한 제작기법, 해외 지역들과의 비교연구 등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현재의 원삼국-삼국시대 마노 구슬에 대한 주요 연구들은 이들 중 대다수는 남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 등 남방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허진아 2018; Glover · Kenoyer 2019; 大賀克彦 2021).

이처럼 한반도의 남방지역과 관련된 특정 마노 구슬류에 대한 논의는 최근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시작한 반면, 그 외 다른 종류의 제작지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선행연구 가운데 허진아(2018)의 연구성과가 대표적인데, 대체로 마한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지역들에서 주로 출토되는 다른 종류들의 제작지에 대한 문제는 활발히 논의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주목하였으며, 뒤에서 자세히 논할 바와 같이 국내 출토품 중 일부는 남방지역이 아닌 북방지역과 관련된 종류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북방계 마노 구슬류의 출토 시기와 출토량, 문헌기록, 원석 산지의 존재 등으로 보아 이들 또한 수입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마노 구슬류를 ‘북방계’와 ‘남방계’로 분류하여 종류별 제작지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 2. 북방계 마노 구슬

본고에서의 ‘북방계’ 마노 구슬은 남아시아/동남아시아 등 남방지역에서 제작된 마노 구슬 종류들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몽골/러시아 극동/중국 동북지방 등의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는 북방과 관련된 마노 구슬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한반도의 마노 구슬류 가운데 원통형, 다면원통형, 관형 등이 이러한 북방과 관련된 종류라고 생각되며, 그 근거는 뒤에서 밝히고자 한다.

종류별 제작지 추론에 앞서 이들의 공통적 특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대체로 주황색 또는 밝은 홍색을 띠는 남방산 마노 구슬과는 달리 갈색 또는 어두운 홍색, 진홍색을 띠며 천공 크기가 비교적 큰 편이라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든 개체에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국내외 출토품에 대한 천공기법 분석 결과에서도 이러한 종류들은 남방산과 구분된다. 국내 출토 마노 구슬류에 대한 천공 분석 결과 원통형, 다면원통형, 관형 구

슬은 석제 천공구 또는 금속제 천공구와 연마재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점은 구형, 다면형 구슬에서는 남아시아의 특징적인 인도 다이아몬드 천공 기술(Indian diamond drilling technique)이 확인된 점과 대비된다(허진아 2018; Glover · Kenoyer 2019). 북방지역의 경우, 몽골지역 철기시대 초기-홍노시기 원통형, 다면원통형 구슬에 대한 천공 기법 분석 결과에서는 상당수가 석제 천공구로 천공된 것이 확인되었으며(Kenoyer 외 2022), 黑龍江유역의 마노제 관형 구슬 제작유적에서는 철제와 석제 천공구, 연마재가 모두 사용된 것이 확인된 바 있다(Института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СОРАН 1998: 207~212). 다만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북방지역의 전체적 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며 같은 종류의 구슬이라도 여러 다른 방식의 천공기법들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석제 천공구나 금속제 천공구를 사용하는 방식은 다이아몬드 천공기술과는 달리 특정 지역들에서만 거의 제한적으로 사용된 기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통해서만 제작지를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후술할 바와 같이 각 종류별 분포 양상, 출토 시기와 출토량 등을 비롯한 다른 여러 측면에서 볼 때도 한반도의 원통형, 다면원통형, 관형 구슬은 북방산이라는 근거들이 확인된다.

### 1) 원통형(圓筒形) 구슬

마노 구슬류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출현하는 원통형 구슬은 청동기시대의 천하석제 환옥(丸玉)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동기시대에 환옥은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에서 널리 제작되었다(배진성 2013: 126~128). 반면 마노제 원통형 구슬은 국내에서는 초기철기시대에 등장하며 이전 시기의 천하석제 환옥과 달리 만경강유역, 사천 늑도 등 대외교류의 거점지로 추정되는 지역들에서만 제한적으로 소량 출토된다. 이러한 점은 마노제 원통형 구슬이 환옥 분포권 내에서 제작되어 수입된 것일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중국 동북지방은 이미 청동기시대부터 마노제 원통형 구슬이 확인되며 현재도 遼寧城 阜新市 등지에 마노 원석 산지가 확인되므로 유력한 후보지가 된다. 동북지역의 초기철기시대 사례로는 기원전 4~2세기대의 遼寧城 桓仁 大甸子(梁志龍 · 王俊輝 1994), 吉林城 九臺 關馬山(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991), 公主嶺 猴石(武保中 1989) 출토품 등이 있다. 외형과 천공관 형태 등이 국내에서 출토되는 초기철기시대 원통형 구슬과 동일하다. 大甸子 출토품은 단면이 직선적인 I 류이며, 關馬山과 公主嶺 猴石 출토품은 단면이 곡선적으로 배가 부

른 Ⅱ류에 해당한다.

이러한 중국의 마노제 원통형 구슬은 夏家店下層文化에서 출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원에서 西周時代에 유행하지만 戰國時代에는 성행하지 않는다(朱曉麗 2010: 136). 반면 몽골지역에서는 현지산 마노를 가공하여 청동기시대 이래로 흉노시기까지 원통형의 마노 구슬이 지속적으로 제작된 것이 확인되었다(Kenoyer 외 2022). 중국 동북지역에서도 청동기시대에 출현한 이후, 吉林城 榆樹 老河深(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995), 永吉 學古(吉林市博物館 1981), 遼寧城 西豐 西岔溝(遼寧省博物館 외 2022), 桓仁 望江樓(孫顯 2012; 朱曉麗 2010: 163) 등 부여, 고구려 시기의 분묘유적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이며 다량 출토된다. 그리고 다면원통형 구슬, 관형 구슬 등 다른 북방계 마노 구슬류와 공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출토되는 마노제 원통형 구슬은 중원지역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열어둘 필요는 있으나 넓게 보아 몽골, 중국 동북지역 등과 관련된 북방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흉노와 부여 유적 출토품 가운데 원통형 Ⅱ류와 유사하나 거의 구형에 가까운 형태 또는 西岔溝, 老河深 출토품 등과 같이 완전한 구형을 띠는 새로운 종류도 확인되는데, 이 또한 원통형 계통일 가능성이 있다. 국내의 원삼국시대 사례로는 동해 송정동 1호 주거지(관동대학교 박물관 1996) 출토품 가운데 다른 북방계 마노 구슬류(관형, 다면원통형)와 함께 이러한 구형에 가까운 원통형 구슬이 확인되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식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2) 다면원통형(多面圓筒形) 구슬

다면원통형 구슬은 청동기시대 이래로 동북지역과 한반도 등지에서 확인되는 기존의 재지계 구슬류와는 다른 종류이며 그 기원지는 흉노지역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흉노의 분묘유적에서는 다면원통형 구슬이 흔하게 확인되며, 최근 흉노 분묘유적 출토 다면원통형 구슬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몽골 현지산 마노를 사용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Kenoyer 외 2022). 그리고 吉林城 榆樹 老河深, 遼寧城 西豐 西岔溝, 通榆 興隆山(吉林省博物館 1992: 14, 161) 등 부여 관련 분묘에서도 다량 확인되어 흉노로부터 동북지역 일대에도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遼寧城의 마노 원석 산지, 그리고 부여에서 赤玉과 美珠가 산출된다는 『三國志』 「魏書 東夷傳」의 기록 등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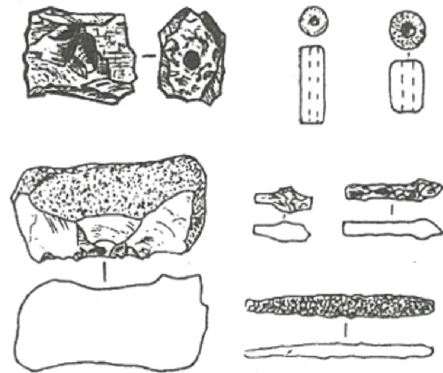
로 보아 동북지역에서도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면원통형 구슬은 낙랑 분묘에서도 다량 출토되며 국내의 원삼국시대 사례는 비교적 소량이지만 김포 운양동, 연천 학곡리, 단양 수양개, 동해 송정동 등 후기의 중부지역에 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 3) 관형(管形) 구슬

마노제 관형 구슬의 제작지에 대해서는 남아시아로부터 원석을 수입하여 한반도 내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허진아 2018: 83, 2020: 158). 그러나 후술할 바와 같이 마노제 관형 구슬의 주요 분포지와 제작 유적, 공반 구슬류, 색조, 문헌기록, 출토 시기 등 여러모로 보아 마노제 관형 구슬 또한 북방계 마노 구슬로 추정된다.

마노제 관형 구슬은 주로 원삼국시대 이후 확인되지만 남방산 마노 구슬이 유입되기 시작하는 원삼국시대 이전의, 초기철기시대 전주 효자동 적석목관묘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이들은 초기철기시대에 주로 확인되는 마노제 원통형 구슬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관형 구슬은 원통형 I 류와 길이의 차이 외에는 형태와 크기 등이 유사하다. 중국 학계에서는 이러한 마노제 원통형 구슬을 관형과 함께 ‘마노관(馬瑙管)’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비슷한 시기 중국 동북지역의 遼寧城 桓仁 大甸子에서도 이러한 ‘마노관(馬瑙管)’이 출토된 바 있다. 大甸子 출토품은 초기철기시대 전주 반월동 출토품(원통형 I 류)과 유사한 형태이다. 따라서 초기철기시대 전주 효자동의 관형 구슬은 반월동의 원통형과 유사한 계통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원삼국시대에는 마노제 관형 구슬이 북방지역(중국 동북, 러시아 극동)과 한반도 중부 이북지역에서 주로 다른 북방계 마노 구슬류(다면원통형, 원통형 등)와 함께 출토된다. 그리고 이들이 대부분 밝은 홍색을 띠는 남방산 마노와는 구분되는 갈색 또는 진홍색으로 서로 유사한 색조를 띠는 점 등으로 보아 마노제 관형 구슬 또한 북방계로 생각된다.



[도면 4] 프라드치노유적 출토품

북방지역에서 현재까지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마노제 관형 구슬의 제작지는 黑龍江유역이다. 러시아 측 黑龍江유역에서는 철기시대 마노제 구슬 제작유적

이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 1~2세기대의 프라드치노(Прядчино)유적이다(Инспиуга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СОРАН 1998: 207~212). 이 유적에서는 마노제(홍옥수) 관형 구슬 완제품을 비롯하여 대량의 구슬 소재와 반제품, 석제 및 철제 천공구가 확인되었다. 특히 서아무르지역의 초기철기시대 탈라칸문화와 중세시대 미하일로프카문화의 공통된 특성 가운데 하나로 마노제 구슬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네스체로프 2000: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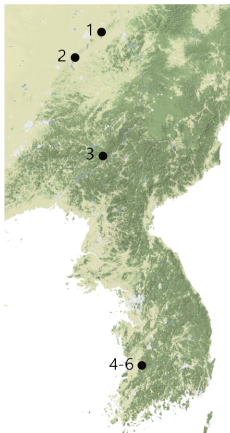
이처럼 黑龍江유역에서 마노제 구슬이 제작된 점은 문헌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는 읍루에서 赤玉이 산출된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부여에서도 붉은 구슬이 산출된다는 기록이 있으나 문헌사학계에서는 부여, 읍루에서 공통적으로 赤玉이 생산된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들은 사실 부여에서는 생산되지 않았고 당시 부여에 신속되어 있던 읍루가 조공한 물품인 것으로 보는 견해(이승호 2019: 48~50)가 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원석 산지와 출토 시기, 북방계 마노구슬류의 출토량 등으로 보아 중국 동북지역에서도 마노 구슬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중국 측 사서에 이처럼 특산품으로 기록된 물품들은 일반적으로 조공 무역품으로 해석되며, 동북아 각지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마노제 관형 구슬이 吉林城 榆樹 老河深, 云峰水库(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8: 52), 遼寧城 西豐 西岔溝, 桓仁 望江樓 등 북방지역에서 다량 출토되며 낙랑 고분군에서도 다수 확인된다. 국내의 원삼국시대 자료는 북방지역에 비해 비교적 소량이지만 연천 학곡리, 하남 미사리, 양평 문호리, 단양 수양개, 동해 송정동 등 후기의 중부지역에 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마노제 관형 구슬과 유사한 형태의 벽옥제 관형 구슬이 청동기시대 이후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지역, 한반도, 일본열도에 분포한다는 점(河村好光 2016)을 참고하면, 마노제 관형 구슬은 다면원통형 구슬과는 달리 초원지역보다는 ‘東夷지역’으로 포괄할 수 있는 러시아 극동 또는 중국 동북지역 일대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국내 출토품의 제작지도 이 지역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그 기원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자료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원전 4-2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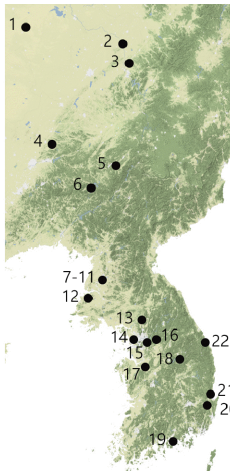


圓筒形 (I類/II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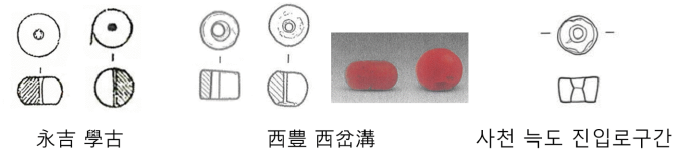


1. 九臺 關馬山 2. 公主嶺 猴石 3. 桓仁 大甸子 4. 전주 만성동 5. 전주 원장동 6. 전주 반월동

기원전 2세기-기원후 3세기



圓筒形 (I類/II類)



多面圓筒形



管形



1. 通榆 興隆山 2. 榆樹 老河深 3. 永吉 學古 4. 西豊 西岔溝 5. 雲峯水庫 6. 桓仁 望江樓  
7. 평양 정백리 8. 평양 석암리 9. 평양 정오동 10. 평양 토성동 11. 평양 오야리  
12. 은울 운성리 13. 연천 학곡리 14. 김포 윤양동 15. 하남 미사리 16. 양평 문호리  
17. 아산 탕정 18. 단양수양개 19. 사천 늑도 20. 경주 덕천리 21. 포항옥성리 22. 동해 송정동

[도면 5] 기원전 4세기~기원후 3세기 중국 동북부-한반도의 북방계 마노 구슬류 출토 사례

### 3. 남방계 마노 구슬

원삼국시대 이후 한반도에 유입되는 또 다른 마노 구슬류는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남방계’ 마노 구슬류이다. 남방지역과 관련된 마노 구슬에 대한 논의는 중국 및 국내 학계에서도 기존에 어느 정도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종류별 제작지 추론에 앞서 기존의 지역별 연구들을 참고하여 남아시아/동남아시아/중국 남부의 남방계 마노 구슬 제작 가능성에 대해 각각 간략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남아시아에는 Gujarat 지역에 현재까지도 잘 알려진 마노 원석 산지가 존재하며 이미 인더스문명기부터 마노 구슬을 제작하여 수출하였다. 대략 기원전 5세기경 이후에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와의 교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마노 구슬 또한 동남아 전역으로 활발히 유통되었다. 이 시기 인도의 마노 구슬 제작 유적으로는 남부지역의 Kodumanal, Pattanam, Arikamedu 등이 있다. 동남아시아의 교류가 점차 강화되며 태국 Khao Sam Kaeo 유적 등의 사례와 같이 동남아시아에서도 인도 장인들(또는 현지인)에 의해 마노 구슬이 제작되기도 했다(Bellina 2003). 동남아시아 각지에도 마노 구슬의 반제품과 마노 원석 산지가 존재하지만, 최근의 캄보디아, 태국 10개 유적에서 출토된 마노 구슬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에서는 대부분 인도산 원석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원석을 수입하여 동남아 현지에서 가공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있다(Carter · Dussubieux 2016).

이러한 남방지역에서 생산된 마노 구슬은 동북아시아에도 활발히 유통되었는데, 살펴볼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廣西城, 廣東城, 湖南城 등 남부지역 일대의 漢墓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물론 중국 각지에서도 신석기시대 이래로 마노제 구슬이 제작되었으며, 先秦 시기에는 결(玦), 배(環), 황(璜), 탁(鐻), 이당(耳璫), 관(管) 등으로 제작되었다(廣州市文物考古博物院 2020: 285). 그러나 기존에 이러한 재지적 마노 구슬 문화가 존재한 지역들이 아닌, 동남부 해안지역에서 중국의 전통적 마노 구슬과는 형태 및 재질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남방계 마노 구슬류가 西漢 중기 이후 다른 여러 외래계 구슬류와 함께 대량으로 출현한다.<sup>7)</sup> 이러한 점은 동남부지역에 嶺南九郡

7) 西漢 중기 이후에는 이전 시기까지 마노 구슬이 제작되지 않았던 동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남아시아/동남아시아와 관련된 다양한 마노 구슬류가 대량으로 유입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노 외에도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다양한 재질의 구슬류 가운데 상당수는 남아시아/동남아시아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홍사오춘 2021: 68~74 등). 다만 이당(耳璫)의 경우에는 중국 전통 기종이지만 마노제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도 제작되었다.

이 설치된 이후 해상 실크로드(Maritime Silk Road)가 활성화된 역사적 배경과 연관되며, 중국 학계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이들은 대부분 해상교역을 통해 남방으로부터 수입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廣州市文物考古博物院 2020: 285; 李靑會 외 2019; 湖南省博物館 2018: 159).

한반도의 경우, 국내에서 다량 출토되는 마노제 구형 구슬이 남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제작되었다는 견해는 이미 제기되었으며, 후술할 바와 같이 구형 구슬 외에도 한반도에서 출토된 다른 여러 종류 또한 남방산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국내의 마노제 구슬뿐만 아니라 이들과 흔히 공반되는 유리제 구슬 또한 대부분 남아시아/동남아시아/중국 남부와 관련된 남방산으로 추정되고 있다(권오영 2017; 박준영 2015; 이인숙 1993). 한반도의 남방계 마노 구슬은 ‘인도태평양구슬(Indo-Pacific Bead)’<sup>8)</sup>으로 불리는 이러한 남방계 유리구슬과 유사한 시·공간적 분포를 보이며 이러한 점은 세계적으로도 거의 동일한 양상이다.

### 1) 구형(球形) 구슬

한반도 각지에서 출토되는 마노제 구형 구슬의 제작지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에서 남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제작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허진아 2018; Glover · Kenoyer 2019; 大賀克彦 2021). 국내 출토품 대부분은 인도 다이아몬드 천공기술(Indian diamond drilling technique)을 비롯하여 백-폴리싱(bag-polishing technique), 팝아웃(pop out) 등 남아시아에서 기원한 제작기법들이 적용된 것이 확인되었다(허진아 2018; Glover · Kenoyer 2019). 구형 구슬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국 남부 등 남방지역에서 확인되는 마노 구슬 가운데 가장 흔한 종류이며,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는 제작 유적(1차 및 2차 생산)이 발견되었다.

남아시아의 대표적 마노 구형 구슬 제작 유적 사례로는 남인도의 초기 역사시대(기원전 4세기~기원후 4세기) 유적인 Kodumanal, Pattanam 등이 있다(Kelly 2013: 109, 122). 동남아시아의 철기시대(기원전 5세기~기원후 5세기) 유적들에서도 이러한 구형 구슬이 흔히 확인된다. 그 사례로는 베트남 중부의 Sa Huynh문화권, 남부의 Oc Eo, 캄보디아 Angkor Borei, Phum Snay, 태국 Ban Non Wat, Khao Sam Kaeo, Phromtin Tai 등이 있다(Carter 2015: 736, 740; Carter 2021: 51; Lertcharnrit 외

8) 남방 해로를 중심으로 널리 유통된, drawn 기법으로 제작된 작은 단색조의 유리구슬.

2023: 14, 19; Nguyen 2017: 324~325). 이때 기원후의 철기시대 후기 유적들에서 II 류의 저품질 구형 구슬이 더 흔하게 확인된다는 점이 주목된다(Bellina 2003; Carter 2015). 한반도에서도 대체로 구형 구슬이 I 류에서 II 류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이와 관련될 수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도판 자료를 통해 볼 때, 廣西城, 廣東城, 湖南城 등 남부지역의 漢墓에서 구형 구슬이 집중적으로 확인되는데, II 류의 경우 後漢代의 분묘에서 흔히 확인되는 듯 하다(熊昭明·富霞著 2019; 熊昭明 2015; 廣州市文物考古博物院 2020; 湖南省博物館 2018). 이러한 점 역시 동남아시아와 같은 시간적 변화상과 관련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상세하게 공개된 자료는 일부에 불과하므로 추후에 보다 전체적인 자료를 대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2) 조형(造型) 구슬

조형 구슬은 한반도에서는 평양 석암리, 정백동, 오야리 등 낙랑 분묘유적에서 주로 확인되며 국내 출토 사례는 드물지만,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국 남부 등 남방지역에서는 구형 구슬과 함께 흔하게 확인되는 종류 중 하나이다.<sup>9)</sup> 남방의 조형 구슬은 다양한 종류로 세분되는데, 크게는 평면 형태가 다면형인 것과 원형인 것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는 전자의 경우 오야리 20호의 사례가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후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석암리 9호 출토품은 마노 가운데 홍옥수가 아닌 흰색 줄무늬가 있는 호마노(縞瑪瑙)로 제작되었는데, 이러한 호마노제 조형 구슬 역시 홍옥수제와 함께 남방지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종류이다. 또한 남방지역에서도 석암리 출토품과 같이 호마노제의 조형 구슬은 평면 원형을 띠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남아시아의 조형 구슬 출토 사례로는 남인도의 Kodumanal(Kelly 2013: 109), 기원전 4~3세기 무렵의 스리랑카 Kantarodai(Gunasena 2018: 273) 출토품 등이 있다. 평면 원형, 다면형 등의 다양한 형태와 홍옥수제, 호마노제 등의 재질이 확인된다. 동남아시아에서도 베트남 Sa Huynh 문화권, 남부의 Oc Eo, 캄보디아 Angkor Borei, Phum Snay, 태국 Ban Non Wat, Khao Sam Kaeo, Phromtin Tai 등을 비롯한 많은 유적들에서 여러 종류의 조형 구슬을 찾아볼 수 있다(Carter 2015: 736, 740; Carter

9) 다만 초기철기시대 부여 청송리 출토 조형 구슬의 경우, 일부 남방계 조형 구슬과 형태상으로는 유사해 보이지만, 남방지역과 동일한 종류일 가능성은 낮다. 몽골, 중국 동북지방 등지의 북방지역에서도 유사품이 확인되며 북방계 원통형 구슬과 유사한 계통일 가능성이 있다. 천공 크기 또한 북방계 마노 구슬류에 가깝다(윤주일 2024: 92).

2021: 51; Lertcharnrit 외 2023: 15~16, 19; Nguyen 2017: 324~325). 중국 남부지역 漢墓에서도 조형 구슬은 가장 흔히 확인되는 종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熊昭明·富霞著 2019; 熊昭明 2015; 廣州市文物考古博物院 2020; 湖南省博物館 2018).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와 마찬가지로 평면 형태가 원형인 것과 다면형인 것, 호마노제 등 여러 종류가 풍부하게 확인된다.

그리고 중국 嶺南지역 외에 長江 하류역 江蘇省 揚州지역의 西漢 후기 甘泉姚庄 M101호묘와 西湖胡场 M14호묘(揚州博物館·天長市博物館 2003) 등에서도 남방계로 추정되는 조형 구슬이 출토된 바 있어 주목된다. 甘泉姚庄 M101호묘에서는 마노제 조형 구슬 두 점이 확인되었는데 한 점은 평면 다면형의 밝은 홍색을 띠는 홍옥수제이며 다른 한 점은 평면 원형의 호마조제이다. 西湖胡场 M14호묘에서는 밝은 홍색을 띠는 I 류의 구형 구슬, 평면 형태 다면형과 원형의 조형 구슬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사자형 수식과 물고기, 도끼, 검 등의 형상을 한 대모제 명기형 수식 등의 남방계 구슬류가 공반되었는데, 이와 동일한 조합이 비슷한 시기의 평양 정백동 3호묘에서도 확인되어 그 유통경로와 관련하여 주목된다(李松蘭 2005: 18~20).

### 3) 고행(鼓形) 구슬

평양 석암리 120호에서 출토된 장구 형태를 띠는 고행 구슬도 남방지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종류이다. 현재 흑백 도판 자료만 남아 있으나 보고서에 ‘홍마노(紅瑪瑙)’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남방지역과 같은 홍옥수제로 추정된다. 중국 남부지역에서는 이러한 고행 구슬이 구형 구슬, 조형 구슬과 함께 주요한 마노 구슬류 중 하나로 보인다(熊昭明·富霞著 2019; 熊昭明 2015; 廣州市文物考古博物院 2020; 湖南省博物館 2018). 마노제 고행 구슬은 중국의 전통적 기종인 이당(耳瑯)과 같은 형태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납-바륨 유리 등의 다른 재질을 통해서는 이러한 이당을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漢代 남부지역에서 성행한 마노(홍옥수)제의 고행 구슬은 현지에서 생산된 분명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반면에 인도 Arikamedu, 태국 Phu Khao Thong 등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반제품이 발견된 바 있어 한식 기종인 이당을 이들 지역에서 마노제로 모방하여 제작한 것이 중국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廣州市文物考古博物院 2020: 304; 李靑會 외 2019: 341). 따라서 마노제 고행 구슬의 제작지에 대해서는 이를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 4) 가자형(茄子形) 구슬

가자형 구슬은 한반도에서는 평양 석암리 120호에서 확인되었다. 석암리 출토품은 현재 흑백 도판 자료만 남아 있으나 흰색 줄무늬가 있다는 보고서의 기록으로 보아 호마노(縞瑪瑙)제로 추정된다. 이러한 형태의 구슬은 남방지역에서는 ‘水滴形(droplet)’으로도 불리며 파키스탄의 기원전후 무렵 Taxila Stupa B6호(Uesugi · Rienjang 2018: 66, 77), 베트남 Sa Huynh 문화권의 Hoa Diem(Nguyen 2017: 324~325) 등지에서도 석암리 출토품과 같은 호마노로 제작된 가자형 구슬이 확인된다. 중국 남부에서는 西漢代의 廣西省 合浦 望牛嶺 M1호(熊昭明 2015: 79), 廣東省 廣州漢墓 M2058호(廣州市文物考古博物院 2020: 178)에서 호마노제 가자형 구슬이 확인된 바 있다. 가자형 구슬은 금제, 유리제 등의 재질로도 제작되었으며 지중해에서 기원하여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국 남부 등지에도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리제의 경우에는 중국 嶺南지방에서도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외 마노 등의 석제품은 외지 수입품으로 추정되고 있다(李靑會 외 2019: 414~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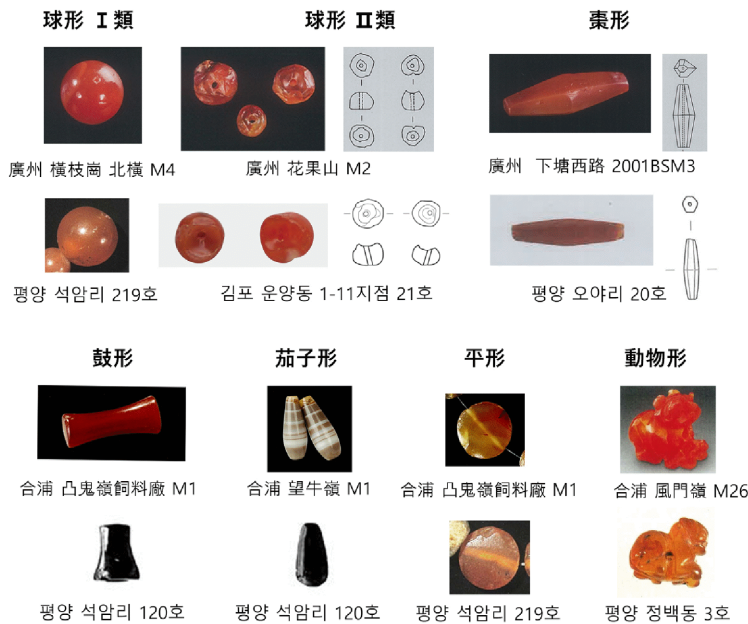
#### 5) 평형(平形) 구슬

옆면이 납작한 원형의 평형 구슬은 평양 석암리 219호에서 구형 구슬, 조형 구슬 등의 다른 마노 구슬류와 함께 한 점 출토된 바 있는데, 이러한 평형 구슬 또한 공반된 종류들과 마찬가지로 파키스탄 Taxila Stupa U1호(Uesugi · Rienjang 2018: 66, 79), 인도 Kodumanal(Kelly 2013: 109), 스리랑카 Alagankulam(Gunasena 2018: 222, 226) 등 남아시아에 주로 분포하는 종류이다. 중국 남부 廣西城 合浦 第二麻紡廠 M30호, 凸鬼嶺飼料廠 M1호(熊昭明 2015: 75, 83) 등의 漢墓에서도 석암리 출토품과 같이 구형 구슬, 조형 구슬 등의 마노 구슬류와 함께 출토된 바 있다.

#### 6) 동물형(動物形) 구슬

평양 정백동 3호에서 출토된 사자형의 마노 구슬에 대해서는 李松蘭(2005)에 의해 남아시아에서 기원한 남방계 구슬으로 추정된 바 있다. 불교에서 부처를 상징하는 의미로서 남아시아에서 기원하여 동남아시아, 중국 남부에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자형 수식은 남방지역에서 마노, 수정, 유리 등 다양한 재질로 제작되었는데, 정백동 37호에서도 남색의 유리제 사자형 수식이 출토된 바 있다. 마노제는 남아시아산으로 생각되지만, 西漢 중기 이후에는 중국 嶺南지방에서도 호박 등의 재질로 모방하

여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홍사오춘 2021). 남방지역의 마노제 사자형 수식 출토 사례는 아프가니스탄 Wardak(Rienjang 외 2017: 53~54), 태국 Ban Don Ta Phet, 베트남 Lai Nghi(Nguyen 2017: 323~324), 西漢代的 廣西城 合浦 堂排 M2호, 風門嶺 M26호(熊昭明 2015: 76~77), 廣東城 廣州漢墓 M3028호, (2014)GHTM15호(廣州市文物考古博物院 2020: 167~168) 등이 있다.



[도면 6] 기원전 2세기~기원후 3세기 중국 남부-한반도의 남방계 마노 구슬류 출토 사례

## 7) 다면형(多面形) 구슬

다면형 구슬은 진·변한지역의 마노 구슬류 가운데 가장 주요한 종류이며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그와 같은 마노제 다면형 구슬이 확인되지 않는다. 마노제 다면형 구슬의 제작지에 대하여 Lauren Glover, J. Mark Kenoyer(2019: 195~196)는 영남지역 마노제 다면형 구슬과 남한 전역에서 출토되는 구형 구슬의 천공기법이 모두 동일한 인도 다이아몬드 천공기술(Indian diamond drilling technique)이므로, 이들은 모두 남아시아산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문제는 마노제 구형 구슬과 달리 다면형 구슬의 경우 한반도 동남부지역 이외에는 그와 동일한 종류가 주로 출토되는 지역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大賀克彦(2021: 130~131)는 마노제 다면형 구슬이 구형 구슬과 달리 광역적으로 분포하지는 않지만 천공방식과 색조 등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동남아시아산 마노제 구형 구슬을 한반도 동남부지역에서 재가공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필자가 이러한 재가공설에 동의하는 근거로서 첨언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첫번째로는, 마노제 다면형 구슬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제작된 수정제 등의 진·변한지역 다른 석제 구슬류와 다르게 대체 2cm 이하의, 단면형태가 납작한 육각형 다면체로 매우 제한적인 형태와 크기를 띤다는 점이다. 이 점은 마노제 구형 구슬의 재가공품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설명이 가능하다. 마노제 다면형 구슬과 마찬가지로 구형 구슬은 대체로 너비가 2cm를 넘지 않는다. 그리고 마노제 다면형 구슬이 단면이 납작한 다면형으로 제한적 형태를 보이는 것도 대체로 구형 구슬의 너비가 두께보다 크다는 점, 그리고 구형 구슬의 한쪽 면에 흔히 남아있는, 천공으로 생긴 박리흔을 마연하여 평평한 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납작한 형태가 적합하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마노제 곡옥이 제작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곡옥 형태는 소형의 구형 구슬을 재가공하여 제작하기에는 불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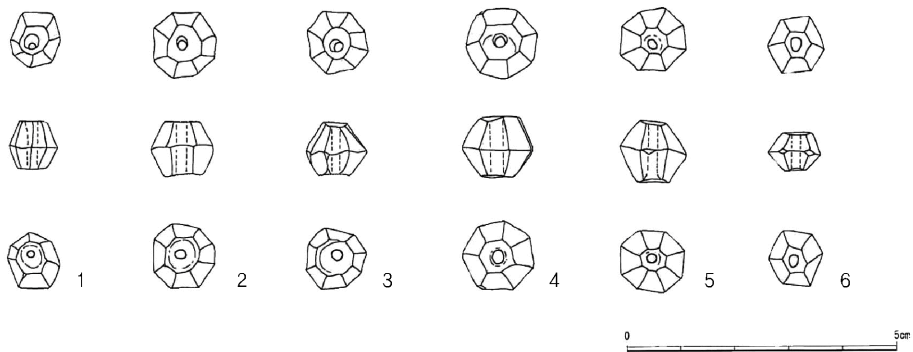
재가공설의 두번째 근거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고창 만동(湖南文化財研究院 2004: 208), 부여 왕흥사지(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 97), 일본 和歌山県 天王塚古墳(和歌山県教育委員会 2021: 57)출토품 등 마한-백제, 그리고 古墳時代 일본열도 등 주변 지역에서는 영남지방의 것과 형태상으로 차이가 있는, 독특한 마노제 다면형 구슬의 사례들이 소수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마노제 다면형 구슬이 각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영남지역 마노제 다면형 구슬은 이 지역에 2세기 후엽 이후 등장하는 수정제 다면형 구슬의 형태(양아림 2014:



82)와 거의 동일하여 이를 모방하여 제작되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앞서 제시한 사례들 가운데 일본 古墳時代 후기 天王塚古墳 출토품은 현지에서 구형 구슬을 재가공한 것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주목된다. 이곳에서 출토된 마노제 다면형 구슬 6점 중 1점(도면 7-1)은 일본산 원료와 천공기법을 사용한 재지산으로 추정되는 반면, 나머지는 일본산보다는 한반도 출토 구형, 다면형과 색조, 천공방식이 동일하지만(大賀克彦 2021: 130~131), 그 중 네 점의 형태는 공반된 일본 재지산 다면형 구슬과 유사한 형태(너비와 두께가 비슷하며 칠, 팔각형인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일본 현지에서 남방산 구형 구슬을 재가공한 것으로 보인다. 영남지역과 달리 단면 형태가 납작한 다각형이 아닌 정다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재가공되었기 때문에 구형 구슬의 한쪽 면에 흔히 남아있는, 천공으로 생긴 박리흔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도면 7-2, 3]과 같이 일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례를 통해 볼 때, 영남지역의 마노제 다면형 구슬 또한 재지산 또는 수입산(완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처럼 재가공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天王塚古墳의 마노 구슬 중 일부는 아마도 신라·가야의 영향을 받아 다면형으로의 재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大賀克彦의 견해와 함께 필자가 제시한 근거들을 통해 볼 때, 진·변한지역의 마노제 다면형 구슬을 재지산 또는 수입산(완제품)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많고, 남방산(남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 구형 구슬의 재가공품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며 이를 통해서만 설명되는 점들이 있다.



[도면 7] 和歌山県 天王塚 출토 마노제 다면형 구슬

## Ⅳ. 마노제 구슬의 유통 과정

본장에서는 북방계와 남방계 마노 구슬류가 제작지로부터 한반도까지 유통되는 과정을 그와 함께 유입되는 다른 장신구류와 함께 검토해보며,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 1. 북방계 마노 구슬의 유통 과정

우선 북방계 마노 구슬류가 한반도로 유입되는 과정을 그와 공반되는 장신구류와 함께 검토해보고자 한다. 한반도로 유입되는 양상의 변화는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 시대로 크게 구분될 수 있는데, 북방지역 유적들의 연대를 함께 고려하여 대략 기원전 4~2세기, 기원전 2세기~기원후 3세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기원전 4~2세기

중국 동북지역에서 마노 구슬은 吉林城 일대에서 가장 대량으로 출토되며 이미 청동기시대부터 성행하므로 吉林지역을 한반도 출토 북방계 마노 구슬의 유력한 생산 후보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한편 遼寧城 桓仁 일대에서는 고구려 이전 시기부터 고구려 초기에 걸쳐 마노 구슬이 吉林 지역과 관련된 장신구류와 공반되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마노 구슬을 포함한 장신구 문화가 吉林 일대에서 桓仁지역으로 유입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신구류의 일부는 한반도까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 동북지역의 이른 시기 양상을 살펴보면, 청동기시대부터 마노 구슬이 장신구로서 성행한 吉林지역과는 달리 遼寧城 桓仁 일대에서는 기원전 4세기 이후 대석개묘에 마노 구슬(원통형/관형), 뾰리 모양 청동제 이식 등의 장신구류가 부장되는 문화가 吉林 남부지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오강원 2015: 42~44). 그리고 기원전 3~2세기 무렵 만경강유역의 적석목관묘, 목관묘에서도 마노제 원통형 및 관형 구슬이 확인되어 이러한 중국 동북지역 장신구류의 일부가 한반도 서남부에도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철기시대 한반도 서남부지역에서 출토되는 마노 구슬 외에 유리제 관형 구슬 또한 吉林지역과 관련된다. 서남부지역의 유리제 관형 구슬은 화학조성상 납-바륨으로 분류되는데, 그 생산 중심지는 長江유역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반도의 청색 납-

바름 유리제 관형 구슬과 유사한 형태의 유리제 관형 구슬이 기원전 4~2세기 무렵의 吉林城 樺甸 西荒山(吉林省文物工作隊·吉林市博物館 1982), 橫道河子(吉林省博物館 1992: 14, 161) 등지에서도 출토된다. 유리제 관형 구슬이 한반도 남부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중국 동북부의 고조선 또는 예맥 세력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권오영 2017: 52). 그리고 중국 동북부에서부터 한반도 서남부로 이어지는 유리제 관형 구슬, 마노제 원통형/관형 구슬의 분포 양상과 전주 반월동과 같은 공반 사례를 보면 이들이 함께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초기철기시대 만경강 유역에 집중 분포하는 마노 구슬은 아마도 이 지역의 유리 및 청동기나 철기 등의 다른 외래계 유물과 유사한 맥락에서 중국 동북지역과의 직·간접적 교류를 통해 유입된 물품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2) 기원전 2세기~기원후 3세기

원삼국시대 이후에 한반도로 유입되는 북방계 마노 구슬류를 살펴보면, 이전 시기에 주류를 이루었던 원통형 구슬도 지속적으로 유입되지만 관형 구슬과 다면원통형 구슬이 보다 활발히 유입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성분분석과 제작유적 등을 통해 볼 때 몽골과 러시아의 흑룡강유역 일대에서 각각 다면원통형과 관형의 마노 구슬이 제작되었음은 분명하지만, 한반도에 유입된 북방계 마노제 구슬은 보다 직접적으로는 중국 동북지역을 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국 동북지역에서도 이들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한반도로 유입되는 경로 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특히 西漢代를 중심으로 하는 부여 관련 분묘유적에서 북방계 마노 구슬류가 다수 확인된다. 국내에서는 북방계 마노 구슬류의 출토 사례가 많지 않고 유적당 10점 내외로 소량 출토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吉林城 榆樹 老河深유적에서는 총 2000점 이상, 遼寧城 西岔溝유적에서는 총 500점 이상의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또한 한반도에 비해 다양한 형식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은 중국 측 사서에 부여에서 赤玉이 산출된다는 기록과 부합하며 부여 지역이 그 주요 생산지 또는 유통 거점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운데 흉노와의 관련성이 주목된다. 부여 시기에 출현하는 새로운 종류인 다면원통형 구슬과 구형에 가까운 원통형 구슬은 비슷한 시기 흉노의 분묘유적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西岔溝유적에서 다량 출토된 유리제 구슬류 가운데 상당수는 흉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주기법(segmenting method)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西岔溝 M30호에서 출토된 줄무늬가 있는 삼각형의 유리제 수식도 흉노의 분묘유적에서 볼 수 있는데, 그 기원지 또는 제작지는 더 멀리 서아시아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Tamura 2022).

이처럼 吉林지역에서는 이 무렵부터 흉노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종류의 마노제/유리제 구슬류가 유입되며, 이전 시기보다 훨씬 다종다양한 마노 구슬류가 유통 또는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상에서 앞선 시기의 吉林지역과 桓仁 일대의 교류 또한 지속되며 고구려지역에도 부여계뿐만 아니라 서방, 흉노 등과 관련된 구슬류가 유입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점을 보여주는 대표유적으로 桓仁 望江樓고분군이 있다. 望江樓유적에서는 마노 구슬류를 비롯해 금제 이식, 유리제 이전 등의 장신구류가 부여와 유사하다는 점으로 인해 부여와의 관련성이 지적되어왔다. 그리고 이곳에서 출토된 삼각형 줄무늬 수식은 흉노와 부여를 통해 유입된 서방계 유리로 추정된다.

이러한 북방계 장신구류의 일부는 한반도까지 유입되는데, 그 중 마노 구슬류가 가장 주요한 종류라고 생각된다. 원삼국 전기에는 이전 시기 호남지역에 주로 유입되었던 마노제 원통형 구슬이 사천 늑도, 경주 덕천리 등지에 유입된다. 그러나 원삼국 전기 남한지역의 출토 사례는 이처럼 소수에 불과하며 이 무렵 마노 구슬의 주요 소비지는 낙랑군이다. 낙랑지역 분묘에서는 기원전 1세기대부터 관형 구슬, 다면원통형 구슬 등 다양한 북방계 마노 구슬류가 다량으로 확인된다. 이는 유사한 시기 흉노와의 교류 관계 속에서 부여, 고구려에 유입된 이전에 비해 다양화된 마노 구슬류가 낙랑군에도 활발히 유입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북방계 마노 구슬류의 유입은 낙랑군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 군현 세력이 약화되는 원삼국 후기가 되면 중부지역에도 비교적 소량이지만 광범위하게 유통된다.

이때 주목되는 점은 낙랑 분묘에서는 북방계 외에도 남방계, 한식계 등 다양한 계통의 구슬류가 혼재하는 반면, 중부지역 예계 문화권에서는 북방계 장신구 문화의 성격이 비교적 짙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동시기 삼한지역에서는 남방계 구슬류가 대량으로 출토되나 북방계 마노 구슬은 잘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에, 중부지역에서는 북방계 마노 구슬이 그 출토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임진강유역, 북한강유역, 남한강유역, 영동지역 등 '뫼'자형 주거지가 분포하는 범위의 거의 전역에 걸쳐 확인된다. 특히 남방계 마노 구슬은 대체로 다른 남방계 구슬류인 유리구슬과 공반되어 대량 출토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북방계 마노 구슬은 유리구슬과 공반되지 않고 소량 또

는 단독으로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중부지역에서는 마노 구슬 외에도 북방 지역과 관련된 다른 장신구류들을 찾아볼 수 있다. 원삼국 후기~한성백제기에 걸쳐 중부지역에서는 부여계 금은제 이식, 유리제 이진 등 다른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북방계 장신구류가 출토되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권도희 2020). 중부지역의 부여계 이식은 대체로 수입품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북방계 마노제 구슬 또한 현재로서는 기술 유입보다는 완제품이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는 부여와 읍루에서 赤玉이 생산된다고 기록된 반면에 예에서는 구슬을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문헌자료와 같이 부여와 읍루 지역과 달리 한반도 중부지역의 경우 원석 산지의 존재, 출토량과 출토 시기 등 여러모로 보아 수입품일 가능성이 높다.



[도면 8] 원삼국 후기~한성백제기 중부지역 북방계 장신구류 분포도

이처럼 동시기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북방계 장신구류가 특히 원삼국 후기 마노 구슬을 중심으로 한반도 중부 전역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예계 문화권의 북방계 장신구 유통망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낙랑을 통해 유입되었을 수도 있지만, 삼한지역의 남방계 마노 구슬 교역망과는 구분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마한은 구슬을 매우 선호하였지만 예는 구슬을 보배로 여기지 않았다는 문헌기록과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국 세력이 관여하지 않는 중부 지역과 북방지역 간의 다른 교류 관계를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중부지역과 북방지역 간의 직·간접적인 교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띠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2. 남방계 마노 구슬의 유통 과정

원삼국시대 한반도로 남방계 마노 구슬류가 유입되는 양상은 대략적으로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 무렵의 전기, 그리고 2세기 이후의 후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원삼국시대 마노 구슬류의 변화상은 살펴볼 바와 같이 그 제작지인 남방지역에서 일어나는 전반적 변화 양상, 그리고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남방지역에서부터 한반도에 이르기까지의 유통 양상을 이와 같이 시기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마노와 함께 남방산 유리제 구슬류의 변화도 그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1)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

먼저 기원전후 무렵 동남아시아의 마노 구슬 유통 양상을 살펴보면, 대체로 철기 시대 초기 유적들에서는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포타쉬 유리구슬과 함께 고품질의 다양한 형태를 띠는 마노 구슬류가 주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된다(Carter 2015). 그리고 기원전 2세기말 漢이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부에 嶺南九郡을 설치한 이후 동북아시아에도 이러한 종류의 남방산 구슬류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다. 특히 合浦郡 合浦縣과 南海郡 番禺縣은 동남아시아와의 교역을 담당할 주요 항구였으며, 현재 合浦와 廣州의 漢墓에서는 인도태평양구슬 계열의 포타쉬 유리구슬과 함께 각종 마노 구슬류가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포타쉬 유리구슬의 경우 중국 남부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마노제의 구슬은 대부분 동남아시아로부터 수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合浦에서 출토되는 구형, 조형, 고품형, 평형, 가지형, 동물형 등 다양한 종류의 남방계 마노 구슬류는 비슷한 시기 낙랑 분묘에서 확인되는 종류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한반도에 남방계 구슬류가 유입되기 시작한 계기는 漢이 기원전 2세기말 南越과 衛滿朝鮮을 멸망시키고 이들 지역에 군현을 차례로 설치함으로써 한반도와 남방지역이 漢의 교역망을 통해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노제 구슬류 외에도 유리제 사자형 수식, 대모제 명기형 수식(李松蘭 2005: 18~20), 수정구슬(양아림 2021: 489), 인도태평양구슬 등 이 시기 낙랑에서 출토되는 구슬류 가운데 상당수는 남방지역으로부터 유입된 것이다. 특히 오야리 20호에서 대량으로 출토된 청색 유리구슬 중 다수는 drawn 기법으로 제작된 포타쉬 유리구슬로 밝혀졌는데(국립중앙박물관 2022: 352~369), 이러한 종류는 비슷한 시기에 주류

를 이루는 전형적인 남방지역 구슬류로 볼 수 있다.

낙랑 분묘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다양한 남방산 구슬류를 통해 낙랑군이 兩廣 지역을 위시한 중국 남부지역과 같이 남방계 구슬류가 유통되는 거점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헌기록을 통해 볼 때 漢의 남방 변경지역 군현인 合浦郡은 使行교역 체제 하에서 대외교류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동방의 변경 군현인 낙랑군에서도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외래 문물이 활발히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병준 2019). 한반도에서는 원삼국~삼국시대에 걸쳐 중원지역보다도 더 많은 양의 남방산 구슬류가 출토되는데, 이처럼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차원에서 보아도 남방계 구슬류가 집중 분포하는 주요 소비지가 된 것은 낙랑군의 변경지역 교역 거점지로서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낙랑이 설치된 이후 서북한지역에 다종다양한 구슬류가 집중되며 남한지역, 그리고 일본열도에도 그 중 일부 구슬류가 유통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양상은 낙랑이 이들 지역으로 이어지는 남방 구슬류의 유통망을 장악했음을 시사한다. 이 시기 낙랑 지역에는 각종 마노제 구슬류를 비롯해서 다양한 남방계 구슬류가 유입되는 반면, 남한지역에서는 포타쉬 유리구슬이 대량으로 확인되지만 마노제 구슬류는 드물게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은 중국에서 西漢 말기 이후 유리구슬이 중하위 계층에게도 보급될 정도로 대량으로 유입되지만 석제 구슬류는 여전히 상위계층에 한정되었다는 점(李靑會 외 2019: 373) 등을 통해 볼 때, 남방계 구슬류 중 가장 흔한 종류 중 하나인 인도태평양구슬 계열의 유리구슬만이 삼한지역에 제한적으로 수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2) 2~3세기

2세기 후반 이후 원삼국 후기에는 삼한지역이 마노 구슬의 주요 소비지가 되고 주로 유통되는 남방계 구슬의 종류도 변화한다. 이러한 양상은 남방지역에서의 전반적 변화상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지역을 먼저 살펴보면, 기원후 무렵의 철기시대 후기로 갈수록 포타쉬유리에서 고알루미나 소다유리로 유리구슬의 종류가 변화하기 시작하며, 그와 함께 마노제 구슬류 또한 복잡한 형태의 고품질 구슬류에서 단순한 형태의 저품질 구슬류로 변화하는 양상이 확인된 바 있다. 그리고 이전 시기의 남중국해 유통망을 대신하여 내륙지역의 Mekong River 유역을 중심으로 구슬류가 이전 시기 보다 더 대량으로 확인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변화상은 저품질

대량생산으로의 전환, 그리고 Mekong River 유역에서 扶南 세력의 성장을 암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Carter 2015).

이러한 동남아시아에서의 변화 양상은 원삼국 후기 한반도에서 확인되는 남방계 구슬류의 변화상과도 유사해 보인다. 이전 시기에는 주로 다양한 종류의 고품질 마노 구슬류와 포타쉬 유리구슬이 낙랑을 중심으로 유입되었으나, 원삼국 후기에는 주로 삼한지역에 저품질의 마노 구형 구슬(Ⅱ류)과 고알루미나 소다 유리구슬이 대량으로 유통된다. 이러한 전반적 변화상은 남방지역과 동일하므로 원삼국 후기 이후 한반도 중남부 각지에 저품질의 남방산 마노 구슬이 대량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는 배경은 그 생산지로부터의 변화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원삼국 후기 한반도로 유입되는 남방산 구슬류의 변화상에는 이러한 시기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구슬 교역에 관한 연구들에서 지적되었듯이 중심지와 배후지의 관계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Bellina(2003: 293~294)는 철기시대 후기, 동남아 권력 중심지의 엘리트들은 고품질의 인도산 마노 구슬을 그들 자신들을 위해 수입하여 소비한 반면에 내륙의 배후지 집단들에는 저품질의 재지산 마노 구슬을 공급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철기시대 후기 구슬류가 집중 분포하는 Mekong River 유역 내에서도 중심지와 배후지에 따라 종류의 차이가 확인된다. 扶南國의 외항으로서 교역 중심지로 추정되는 Oc Eo에서는 희소한 재질을 포함한 다양한 구슬류가 확인되는 반면에 대다수의 태국, 캄보디아 내륙지역에는 비교적 흔하고 가치가 낮은 종류들, 구형 구슬 Ⅱ류와 같은 저품질의 마노 구슬과 인도태평양구슬 계열의 고알루미나 소다 유리가 주로 확인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Carter 2021: 51~52). 동남아 내륙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이 두 종류들은 원삼국 후기 국내에서 출토되는 종류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러한 남방지역의 양상과 같이 한반도에서 원삼국 전기에 낙랑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종류의 고품질 마노계 구슬류가 원삼국 후기에 삼한에서는 보이지 않는 점도 중심지와 배후지의 관계, 중국과의 교역 관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남부지역에서는 西漢 중기 이후 東漢 만기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남방계 구슬류가 확인되는 반면, 2~3세기 무렵 한반도 중남부지역에서는 남방계 구슬류 가운데 저품질 마노 구형 구슬(Ⅱ류)과 인도태평양구슬 외에 다른 종류는 매우 드물게 확인된다. 삼한지역에는 아마도 가장 흔하거나 가치가 낮았던 이 두 종류가 주로 유입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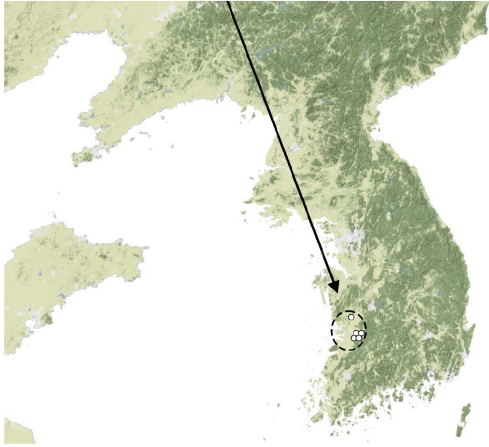


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도 관련될 수 있다. 이전 시기에는 한군현이라는 거점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구슬류가 유입되었으나 漢이 쇠락하고 멸망하는 원삼국 후기에는 삼한의 여러 소국들이 주요 소비 주체가 된다. 『笥書』에는 3세기 후반 마한과 진한이 西晉에 직접 견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3세기 무렵에도 군현 세력이 삼한과 중국 간의 교역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견사 기록에서 나타나듯이 삼한 제집단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교역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삼한지역은 동아시아의 차원에서 볼 때는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배후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저품질 마노 구형 구슬과 같은 가치가 비교적 낮은 종류의 구슬만이 제한적으로 유입되는 양상과 관련될 수 있다. 원삼국 후기 한반도로 유입되는 마노 구슬의 종류와 그 유통 양상이 변화하게 되는 배경 요인에 대해서는 이처럼 남방지역에서의 구슬류 변화, 그리고 주요 소비 주체와 교역 방식의 변화 등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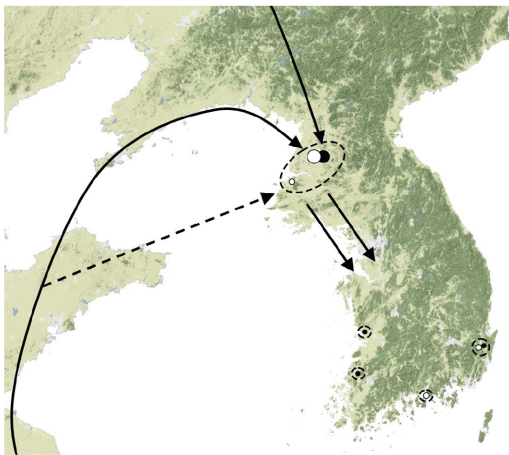
한편, 이와 같이 원삼국 후기 남방지역으로부터 삼한지역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남방산 마노 구슬은 한반도의 교역사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남방산 마노제 및 유리제 구슬류는 이 시기의 대중교역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고고자료 중 하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원전후 무렵 한경과 같은 한식 위세품이 진·변한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유입되지만, 원삼국 후기에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때 주목되는 것은 이전 시기 한식 위세품이 가장 활발히 유입되었던 진한지역에서 1세기 후반 이후 한식 유물이 감소하지만, 이 무렵부터 각지에서 유리구슬의 부장이 급증하며 그 외에도 청동천, 대구 등의 장신구류가 본격적으로 부장된다는 점이다(채상훈 2019: 78~79). 이러한 점은 그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진한지역에서 상위 계층 장신구류 부장 풍습 변화와 함께 낙랑을 통한 주요 교역품이 한식 청동기류에서 남방산 구슬류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 3세기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양상이 더욱 심화되어 삼한 전역에서 남방산 구슬류가 다량으로 널리 유통되며, 유리제 구슬뿐만 아니라 마노제 구슬이 본격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된다. 따라서 원삼국 후기의 활발한 대중교역 양상은 중국계 유물보다는 오히려 마노제/유리제 남방산 구슬류를 통하여 더욱 잘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헌기록에 나타난 당시 삼한 각 지역의 대중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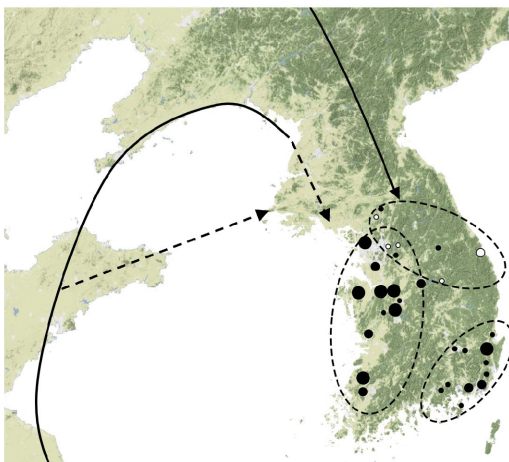
초기철기시대

- 북방계
- 원통형 / 관형



원삼국 전기

- 북방계
- 서북부 - 원통형 / 다면원통형 / 관형
- 남부 - 원통형
- 남방계
- 서북부 - 구형 / 조형 / 동물형 / 평형 / 가자형 / 고평
- 남부 - 구형



원삼국 후기

- 북방계
- 원통형 / 다면원통형 / 관형
- 남방계
- 중부·중서부·서남부 - 구형
- 동남부 - 구형 / 다면형(재가공품)

[도면 9] 초기철기~원삼국시대 한반도의 시기별 마노 구슬류 유통 양상

류 양상과도 부합하게 된다. 군현 세력의 통제력 약화와 인근 마한 세력의 해상교역을 통한 성장, 그리고 사로국을 중심으로 한 진한연맹체의 對西晉 조공 교역 등 문헌기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원삼국 후기 삼한 각지의 활발한 대중교역 양상은 남방계 마노 구슬의 지역별 분포를 통해 확인되는 모습과 유사하다(윤주일 2024: 111~118).

지금까지 살펴본 각종 마노 구슬류가 제작지로부터 한반도까지 유통되는 과정을 토대로 한반도 내에서의 마노 구슬 유통 양상을 시기별로 나타내면 [도면 9]와 같다.

## V. 맺음말

본고에서는 그동안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마노 구슬에 대해 유통의 측면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노 구슬의 형태를 12종으로 분류하고 전개양상을 검토하였으며 종류별 제작지와 분포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기철기~원삼국시대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12종의 마노제 구슬류는 원석 산지, 제작 유적, 재지적 형식, 제작기법, 분포 양상, 당대의 문헌기록 등으로 보아 주로 북방지역(몽골/러시아 극동/중국 동북)에서 제작된 ‘북방계’와 남방지역(남아시아/동남아시아)에서 제작된 ‘남방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영남지역에서 주류를 이루는 다면형 구슬은 남방산 구형 구슬의 재가공품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각종 마노제 구슬류가 한반도로 유통되는 과정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한다. 초기철기시대에는 만경강유역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지역으로부터 북방계 마노 구슬이 유입되지만, 기원전 108년 漢이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군현을 설치한 이후에는 중국 본토와의 교역망을 통해 낙랑군에 다양한 남방계 마노 구슬류가 집중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며, 한편 북방계 마노 구슬류 또한 활발히 유입된다. 그리고 원삼국 후기에는 군현 세력이 약화되며 삼한 및 예가 성장하여 마노 구슬의 주요 소비지가 된다. 중서부, 서남부와 동남부지역은 대중교역을 통해 남방계 마노 구형 구슬이 다량으로 유입되는 반면, 중부지역에서는 북방계 마노 구슬류가 소량으로 유입되어 삼한과 예계 문화권 간 뚜렷한 유통망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본고에서는 초기철기~원삼국시대 마노제 구슬류의 제작지를 크게 북방과 남방으로 구분하고 전반적 유통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작지와 유

통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역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한계 점도 있었다. 광범위한 지역의 세부적인 양상을 모두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한반도 내 각 지역에서의 유통 양상과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지면 관계상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 논문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제작기법 분석을 통해 제작지에 관한 논의에서 큰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는데, 본고에서 검토한 국내외 자료들에 대해서도 제작기법 분석, 석재의 성분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제작지에 대해 더욱 세부적인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고는 필자(2024)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투고일 2024. 12. 31 | 심사완료일 2025. 1. 20 | 게재확정일 2025. 2. 5

## 참고문헌

-국문-

- 河村好光, 2016, 「연해지방으로 본 동북아시아의 구슬」, 『한·일의 장신구』, 영남고고학회·유주고고학회 제 12회 합동고고학대회, 우주문화사.
- 국립경주박물관, 2021, 『오색영릉, 한국의 고대 유리와 신라』.
-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9, 『王興寺址III-木塔址 金堂址 發掘調査 報告書』,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學術研究叢書 第52輯.
- 국립중앙박물관, 2001, 『낙랑』.
- \_\_\_\_\_, 2002, 『平壤貞柏里8·13號墳』, 日帝強占期資料調查報告3.
- \_\_\_\_\_, 2018, 『平壤 石巖里 9號墳』, 日帝強占期資料調查報告 30輯.
- \_\_\_\_\_, 2021, 『평양 오아리 18~21·25호분-유구편』, 日帝強占期資料調查報告 41輯.
- \_\_\_\_\_, 2022, 『평양 오아리 18~21·25호분-유물편』, 日帝強占期資料調查報告 42輯.
- 권도희, 2020, 「중부지역에서 보이는 북방계 유물의 사례검토」, 『유적과 유물로 본 부여의 고대 네트워크』,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제12회 학술회의, ICAA·고조선부여연구회.
- 권오영, 2017, 한반도(韓半島)에 수입(輸入)된 유리(琉璃)구슬의 변화과정(變化過程)과 경로(經路)」, 『호서고고학』 37, 호서고고학회.
- 김무중, 2006, 「마한 지역 낙랑계 유물의 전개 양상」, 『낙랑문화연구』20, 동북아역사재단.
- 김미령·김승욱, 2013, 「마한의 玉 문화」, 『한국 선사·고대의 구슬문화 연구』, 학술연구총서 제38책, 복천박물관.
- 김병준, 2019, 「고대 동아시아 해양 네트워크와 사형교역」, 『한국상고사학보』 106, 한국상고사학회.
- 관동대학교 박물관, 1996, 「동해항만확장공사구역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결과 요약보고」.
- 박준영, 2015, 「한국 고대 유리구슬의 생산과 유통」,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진성, 2013, 「청동기시대 구슬의 출현과 전개: 초기~전기를 중심으로」, 『한국 선사·고대의 구슬문화 연구』, 학술연구총서 제38책, 복천박물관.
- S.P. 네스체로프, 2000, 「I-III세기 서아무르 유역 주민들의 민족문화사」, 『동아시아1~3세기의 고고학-고고학 연구의 쟁점』, 국립문화재연구소.
- 양아림, 2014, 『韓半島 出土 水晶多面玉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21, 「원삼국시대 한반도 출토 수정계 구슬의 제작과 변천」, 『한국고고학보』121, 한국고고학회.
- 오강원, 2015, 「선고구려·고구려 초기의 물질문화와 주변 세계」, 『삼국시대 국가의 성장과 물질문화 2』,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尹龍九, 1999, 「三韓의 朝貢貿易에 대한 一考察」, 『歷史學報』 162, 歷史學會.
- 윤주일, 2024, 「초기철기-원삼국시대 마노제옥의 유통과 전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李松蘭, 2005, 「樂浪 貞柏洞3호분과 27호분의 南方系獅子形 垂飾과 商人의 활동」, 『美術史學研究』 245, 韓國美術史學會.
- 이승호, 2019, 「1~3세기 중국 동북지역 정세 변화와 貂皮 교역」, 『동국사학』 67.
- 李陽洙, 2006, 「韓半島에서 漢鏡의 分配와 流通」, 『고고학지』 15, 한국고고미술연구.
- 이인숙, 1993, 『한국의 고대유리』, 백산문화.
- 이현혜, 1994, 「삼한의 대외교역체계」, 『이기백선생 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 상, 일조각.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2 - 고조선, 부여, 진국편』, 동광출판사.
- 조성원, 2019, 「구슬문화로 본 가야의 대외교류」, 『금관가야 출토 구슬을 통해 본 대외교류』, 국립김해박물관·동의대학교박물관 공동 심포지엄.
- 채상훈, 2019, 「사료국과 주변지역과의 관계」, 『목관묘로 본 사료국의 형성과 전개』 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함순섭, 1998, 「天安 青銅器遺跡을 통해 본 馬韓의 對外交渉」, 『百濟研究』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허진아, 2018, 「마한 원거리 위세품 교역과 사회정치적 의미 -석제 카넬리안 구슬을 중심으로-」, 『호서고고학』 41, 호서고고학회.
- \_\_\_\_\_, 2020, 「중도문화 수공품 생산경제에서 위세품 소비의 사회적 의미」, 『문헌과 고고자료 속의 고대 강원』, 제3회 강원 고대문화 연구 심포지엄, 국립춘천박물관.
- 湖南文化財研究院, 2004, 『高敞 萬洞遺蹟』.
- 홍보식·조성원, 2013, 「변·진한의 구슬: 분묘 출토품을 중심으로」, 『한국 선사·고대의 구슬문화 연구』, 학술연구총서 제38책, 복천박물관.
- 홍사오춘, 2021, 「중국 남방 고대의 구슬 장식」, 『아시아의 구슬 문화』, 국립나주박물관 학술총서3.

-중문-

- 廣州市文物考古博物院編著, 2020, 『廣州出土漢代珠飾研究』, 科學出版社.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991, 「吉林九臺市石砬山, 關馬山西團山文化墓地」, 『考古』1991-4.
- \_\_\_\_\_, 1995, 『榆樹老河深』, 民族文化.
- \_\_\_\_\_, 2008, 『田野考古集粹: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成立二十伍周年紀念』, 文物出版社.
- 吉林省文物工作隊·吉林市博物館, 1982, 「吉林樺甸西荒山屯青銅短劍墓」, 『東北考古與歷史』1.
- 吉林省博物館編, 1992, 『吉林省博物館』, 文物出版社.
- 吉林市博物館, 1981, 「吉林永吉縣學古東山遺址試掘簡報」, 『考古』1981-6.
- 武保中, 1989, 「吉林公主嶺猴石古墓」, 『北方文物』, 1989-4.
- 孫穎, 2012, 『高句麗陶器研究』, 吉林大學博士論文.
- 揚州博物館, 天長市博物館編, 2003, 『漢廣陵國玉器』, 北京: 文物出版社.
- 梁志龍·王俊輝, 1994, 「遼寧桓仁出土青銅遺物墓葬及相關問題」, 『博物館研究』1994-2.
- 遼寧省博物館·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編著, 2022, 『西豐西岔溝: 西漢時期東北民族墓地』, 文物出版社.
- 熊昭明, 2015, 『汉代合浦港考古与海上丝绸之路』, 文物出版社.
- 熊昭明·富霞著, 2019, 『合浦汉墓』, 合浦县申报海上丝绸之路世界文化遗产中心编, 广西科学技术出版社.
- 李青会 外, 2019, 『文化交流视野下的汉代台浦港』, 广西: 科学技术出版社.
- 朱曉麗, 2010, 『中国古代珠子』, 广西美术出版社.
- 湖南省博物館編, 2018, 『湖南出土珠飾研究』, 湖南人民出版社.

-일문-

- 大賀克彦, 2021, 「天王塚古墳の玉類」, 『特別史跡 岩橋千塚古墳群-天王塚古墳 2次・3次発掘調査報告書-』, 和歌山県教育委員会.
- 和歌山県教育委員会, 2021, 『特別史跡 岩橋千塚古墳群-天王塚古墳 2次・3次発掘調査報告書-』.

-영문-

- Alison Kyra Carter, 2015, Beads, Exchange Networks and Emerging Complexity: A Case Study from Cambodia and Thailand (500 BCE - CE 500). *Cambridge Archaeological Journal* 25:733-757.
- Alison Kyra Carter and Laure Dussubieux, 2016, Geologic Provenience Analysis of Agate and

- Carnelian Beads Using Laser Ablation-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LA-ICP-MS): A Case Study from Iron Age Cambodia and Thailand.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Reports* 6:321-331.
- Alison Kyra Carter, Laure Dussubieux, Miriam T. Stark, and H. Albert Gilg, 2021, Angkor Borei and Protohistoric Trade Networks: A View from the Glass and Stone Bead Assemblage, *Asian Perspectives* 60:32-70.
- B er enice Bellina, 2003, Beads, social change and interaction between India and South-east Asia. *Antiquity* 77, pp 285-297.
- Lauren Glover and J.M.Kenoyer, 2019. Overlooked Imports: Carnelian Beads in the Korean Peninsula. *Asian Perspectives: The Journal of Archaeology for Asia and Pacific*, Vol. 58 No.1: 180-201.
- Nguyen Kim Dung, 2017, The Sa Huynh Culture in Ancient Regional Trade Networks: A Comparative Study of Ornaments. *New Perspectives in Southeast Asian and Pacific Prehistory*. ANU Press.
- Gwendolyn Ida Ortner Kelly, 2013, *Craft Specialization, Technology and Social Change: A Study of Material Culture in Iron Age and Early Historic South India (C. 1200 BCE-400 CE)*.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J.M.Kenoyer, Asa Cameron, Dashzeveg Bukhchuluun, Chunag Amartuvshin, Batdalai Byambatseren, William Honeychurch, Laure Dussubieux, Randall Law, 2022, Carnelian beads in Mongolia: new perspectives on technology and trade, *Archaeological and Anthropological Sciences* 14(6).
- Kaushalya Gunasena, 2018, *Interactions between Sri Lanka and South India in the Early and Middle Historic through the perspective of personal adornment*,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Archaeology, University of Exeter.
- Thanik Lertcharmit, Wannaporn Rienjang, Alison Carter, Jonathan Mark Kenoyer and Randall W. Law, 2023, Prehistoric Stone Ornaments from Phromtin Tai, Central Thailand: New Perspectives on Workshop Traditions through the Study of Drilling Methods, *Asian Perspectives*, Vol. 63, No. 1.
- Tomomi Tamura, 2022, Glass beads trade of Xiongnu and Xianbei, Society for East Asian Archaeology 9th Worldwide Conference.
- Wannaporn Rienjang, Jonathan Mark Kenoyer and Margaret Sax, 2017, Stone beads from the relic deposits, in *Charles Masson and the Buddhist Sites of Afghanistan: 52-57*, ed. Elizabeth Errington. London: British Museum Press.
- Wannaporn Rienjang and Akinori Uesugi, 2018, Stone Beads from Stupa Relic Deposits at the Dharmarajika Buddhist Complex, Taxila, *Gandh aran Studies*, vol. 11: 53-83.

-노문-

Института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СО РАН, 1998, 『ПРОБЛЕМЫ АРХЕОЛОГИИ, ЭТНОГРАФИИ, АНТРОПОЛОГИИ СИБИРИ СОПРЕДЕЛЬНЫХ ТЕРРИТОРИЙ』 IV, ИЗДАТЕЛЬСТВО ИНСТИТУТА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СОРАНИНОВОСИБИРСК

# The Trade of Carnelian Beads during the Early Iron Age and Proto-Three Kingdoms Period

Yun, Ju-Il (Research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ilk Road Survey & Research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ade networks of carnelian beads during the Early Iron Age and Proto-Three Kingdoms period. In the paper, the types of carnelian beads were classified, the distribution patterns of each period and region were reviewe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origin and distribution by type. The carnelian beads excavated in Korea were assumed to be imported from the northern region (Mongolia/Russian Far East/Northeast China) and the southern region (South Asia/Southeast Asia) based on the geological sources, production sites, regional shapes, manufacturing techniques, distribution patterns, and historical records. And the multi-faceted beads in the southeastern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seems to be reprocessed products of the spherical beads from South Asia/Southeast Asia.

The distribution of carnelian beads in the Korean Peninsula reflects the historical situation of the time. In the Early Iron Age, northern carnelian beads flowed from northeastern China, mainly to the southwestern region. But after the establishment of Lelang (樂浪) by Han (漢), a large amount of southern carnelian beads began to flow through the trade network of China. In the late Proto-Three Kingdoms period, Lelang had been weakened, and Three Han (三韓) grew to become major consumers of the southern carnelian beads. On the other hand, in the central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seems that there was the northern carnelian bead network.

**Key words : Early Iron Age, Proto-Three Kingdoms period, Carnelian, Bead, Trade**